Youngeun News

동행

12월

2024년 460호



사진 : 허영준 집사

아름다운 실패

실을 감아 놓는 실패입니다.
아름답지요?
네, 아름다운 실패입니다.



일을 잘못하여 그르치는 실패(失敗)도 있습니다.
이 실패도 아름다울 수 있습니다.

2024년 실패의 상처를 잘 꿰맬 수 있다면
2025년은 아름다운 해가 되지 않을까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나니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시편 37:23~24)

〈글 · 사진 : 서현이 기자〉

영은교회 창립 주후 1960. 04. 24



월간 동행 영은 홍보부

1984년 4월 27일 창간
발행일 제460호 / 2024. 12. 1
서울시 영등포구 양산로 61 영은교회
전화. 02-2676-7171~2
월간 동행 E-mail. yemagazine@naver.com

발 행 인 이승구 목사
지도목사 최광주 목사
편 집 인 김광일 장로
편 집 장 구자민 안수집사
서선이 권사
팀 장 김창원 집사
편 집 서선이 김경원B
기 자 김명희C 서현이 이숙경
사진기자 허영준
디 자 인 디자인 샘

월간 동행지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도들의 삶과 간증을 나누는 교회 소식지입니다.

CONTENTS

02 **그림이 있는 풍경**
아름다운 실패 / 서현이 기자
04 **생명의 말씀**
감사 훈련 / 이승구 담임목사
07 **믿고 알고 알고 믿고**
구약에 나타난 '가난한 자'는 누구인가? / 김민식 목사
08 **동행**
'우울증'의 이해와 교회의 돌봄 / 김규리 목사
10 **웹진 동행**
2025년도 1여전도회 임원단 선출 / 강경옥 권사 (1여전)
갈렙남성합창단 제2회 연주회 "주의 사랑 안에서" / 김우철 장로
6여전도회, 2025년 새임원단 선출 / 양슬기 집사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함께 서 있는 공동체"가 구현된
새본당 – 본당 리모델링을 마치고 –
14 **영은 소식**
2024년 임직식 / 서선이 기자
추수감사주일 교구별 찬송경연대회 / 김명희 기자
LOVE IS POWER (사랑이 힘이다) / 장예은(연출)
빛나는 성과의 주역이 된 영은 로이 수영팀 / 윤흥식 안수집사
20 **신앙의 유산**
평생 '찬양자'로 살아온 홍창식 은퇴장로
22 **삐딱하게**
보라, 새것이 되었……, 나? / 이숙경 기자
23 **녹색교회 : 녹색계명**
영은, 녹색 제10계명 : 녹색 식단을 실천한다! / 장예은 (팀.초록 팀장)
24 **교회안내**
장로, 안수집사, 권사 임직예식

2024년 「월간 동행」 사역자 모집
샬롬!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심을 생생한 글과 사진으로 남기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월간 동행과 함께 동역하실 사역자를 기다립니다.

「월간 동행」에서는 성도님들의 소식을 기다립니다.
영은 성도들과 함께 나누거나 알리고 싶은 소식이 있으면 월간 동행 이메일(yemagazine@naver.com)로 사진과 함께 보내주세요.
편집회의 검토한 후 월간 동행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훈련

(출애굽기 12:21~22)



글 | 이승구 담임목사

■ 불평과 감사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라암셋에서 이끌고 나왔습니다. 그러니 출애굽 백성들에게 공동체의 리더인 모세는 감사의 대상이어야 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출 1:13~14)

라암셋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도록 고생하면서 성을 쌓던 곳이었습니다. 노예로 학대당하며 극심한 고통을 겪은 곳입니다. 모세는 이와 같은 삶의 자리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으로 이끌었습니다. 그들은 라암셋에서 떠나 숙곳을 거쳐 에담을 지나고 비하히롯 사이 믹돌에 진을 쳤습니다. 이때 애굽왕 바로가 군대를 몰고 뒤쫓아 왔습니다. 그 모습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에게 감사하기는커녕 심히 두려워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모세에게 불평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고질적인 만성질환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원망과 불평입니다. 출애굽기 15장에서 홍해가 갈라지는 놀라운 기적을 보고서도, 수르 광야에서 3일 동안 물을 못 마셨다고 원망합니다. 이어 16장에서도 엘림에서 떠나 신광야에 이르렀을 때에는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 고기가마 곁에서 떡을 먹었던 일을 그리워하며 불평을 쏟아냈습니다.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 "너희가 원망하는 말을 들었다"라고 말씀하실 정도였습니다. 감사해야 할 상황에서 감사는커녕 불평만 늘어놓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40년간 멸망당하고 넘어진 여러 이유 중 하나도 원망이었습니다(고전 10:10).

원망하지 않고 감사하는 자세를 갖기 위해서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 감사 훈련 : 바로 앞에 계신 하나님을 보는 눈

최고의 감사 훈련은 앞에 계신 하나님을 보는 눈을 갖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출 13:21)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을 길 없는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사방을 둘러보아도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 없

모세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어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인방과 좌우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출애굽기 12:21~22)

는 광야에서 하나님은 백성들보다 앞서 가셔서 스스로 길이 되어주셨습니다. 여기서 '가시며' 로 번역된 단어는 '걷다' 라는 뜻에서 나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긴 대열에 하나님이 함께 걷고 계셨고, '앞에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갈 때까지 단 한순간도 떠나지 않고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적어도 광야를 행군하는 데 있어서 만큼은 다른 일에 신경을 쓰지 않고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만 따르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저 먼 발치에서 '따라와!' 외치지 않으시고, 바로 앞에서 '따라와!' 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치 군대에서 야간 행군을 할 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캄캄한 밤에 앞 사람만 보고 행군을 이어가는 것과 비슷합니다.

바로 앞에서 우리를 이끌어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감사의 눈' 을 가져야 합니다. 때로는 장애물을 피하게 하시고, 때로는 예기치 못했던 일 가운데서도 조명해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며, 어두움보다 빛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합니다. 감사 일기를 쓰거나 감사 나눔을 꾸준히 하면서 바로 앞에서 이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는 눈을 밝히십시오.

■ 감사 훈련 : 끝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출 13:22)

이 구절은 끝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떠나다' 라는 뜻을 지닌 단어는 미완료형으로 부정어 뒤에 쓰였습니다. 히브리어 문법에서 부정어 뒤에 미완료형이 쓰이면 영원한 금지 혹은 계속되는 금지를 나타냅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광야 여행이 끝날 때까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셨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보는 눈이 열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그것을 보지 못하면 은혜를 온전히 누릴 수 없습니다. 눈앞의 현실만 보고 성급하게 어리석은 말을 내뱉어서는 안 됩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만 일희일비하며 괴로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정확히 바라보는 눈을 가져야 합니다.

"주님께서 광야에서 야곱을 찾으셨고, 짐승의 울음소리만 들려 오는 황야에서 그를 만나, 감싸 주고, 보호하고, 당신의 눈동자처럼 지켜 주셨다. 마치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뒤흔들고 새끼들 위에서 퍼덕이며, 날개를 펴서 새끼들을 받아 그 날개 위에 업어 나르듯이" (신 32:10~11 : 새번역)

모세는 삶의 마지막 때에 지난날을 회고하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눈동자처럼 우리를 지켜주시는데 그 모습이 마치 독수리와 같다고 합니다. 독수리가 자기 둥지를 뒤흔들고, 새끼독수리가 날 수 있도록 훈련시키며, 위기의 순간에 날개를 펴서 새끼들을 잡아 날개 끝에 얹는 것 같다고 비유합니다. 새끼독수리는 두려움을 이기고 둥지에서 떨어지는 방법을 배울 때 비로소 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들을 흩으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독수리가 날개를 펼쳐 자기 새끼들을 잡아 날개 끝에 얹어 날아오르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십니다. 광야 같은 시간을 보낼 때,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 가운데 있는 것 같을 때, 수렁에 빠져 있는 것 같은 상황에 있을 때, 우리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절망의 시간 속에 있을 때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는 눈을 가지면 감사를 고백할 수 있습니다.

내게 오신 주님은 때때로 내가 주님의 인도를 분별하지 못해서 방황하는 순간이 있어도 나와 함께하십니다. 태양이 구름에 가려 보이지 않아도 태양은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내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발견하지 못할 따름이지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를 인도하시며 나와 함께 하시는 사실은 변치 않습니다.

■ 최고의 감사 훈련

감사도 훈련이 필요합니다.
우리 앞에서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영의 눈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영의 눈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영의 눈이 있어야 합니다.

이와 같은 영의 눈을 통해 감사의 고백이 넘쳐나는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구약에 나타난 '가난한 자'는 누구인가?



글 | 김민시 목사

성경에는 '가난한 자'라는 표현이 자주 등장한다. '가난한 자'를 표현하는 대표적인 히브리어는 〈아나빔〉이다. '가난하고 궁핍하며 압제와 괴롭힘을 당하는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가리킨다. 일차적으로 사회, 경제, 정치적 차원에서 소외당하고 억압받는 사람들을 지칭하며, 이들은 삶의 적대적인 환경과 처지에서 곤경을 당하고 죽음의 위협 속에 있는 사람들이다.

가난한 자를 가장 잘 표현하는 본문이 시편에 자주 등장한다. 시편 72편은 〈제왕시편〉으로 왕을 위한 기도이다. 시인은 이 기도에서 왕이 해야 할 일에 대해 말하며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가난한 자도 건지며,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불쌍히 여겨 생명을 구원하는 것"이라고 한다. 왕이 해야 할 일은 도울 사람이 없는 약한 자와 궁핍한 자를 돕고 구하는 것이다. 또한 시편 146편은 왕 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준다. 하나님은 억눌린 자, 주린 자, 갇힌 자, 맹인들, 비굴한 자, 나그네, 고아, 과부를 돌보시는 분이다. 여기 나타난 사람들 또한 가난한 자와 동일한 계열의 사람들이다.

구약의 '가난한 자'는 깊은 신학적 메시지를 담고 있다. 시편 146편에서는 '가난한 자'를 '의인들'과 동일시한다. 또한 온유한 자, 겸손한 자, 의로운 자, 신실한 자로 표현되기도 한다. 신분과 처지를 넘어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음을 보여준다. 구약의 여러 본문에서 가난한 자들은 '스스로 가진 것이 없어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기댈 수 밖에 없는 사람들', '깊은 절망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이 구원해주시기를 간구하는 사람들'이다.

정리하자면, 구약에서 가난한 자는 이중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다.

1) 자신이 가진 결핍으로 인해 고통을 당하는 사람.

2) 세상에서는 가진 것이 없어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의 대상으로 삼는 사람이다. 자신이 가진 결핍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겸손하고 온유하며 신실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이다.

이사야 61장 1~2절에서는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은 자의 사명에 대해 고백한다. 가난한 자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것이다. 여기서 아름다운 소식이란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 된 자에게는 자유를, 갇힌 자에게 놓임을, 슬픈 자는 위로하는 복음'이다. 이것은 구약의 메시아 예언 말씀으로, 예수님의 사명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이루고자 하셨던 바가 무엇이었는지를 보여준다.

'가난한 자'의 고찰은 다음과 같은 교훈을 준다. 첫째, 가난한 자를 압제하지 말고 도우라. 둘째, 가난한 자가 되라. 가진 것 없어도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의 대상으로 삼는 사람.

셋째, 가난한 자의 하나님, 가난한 자에게 전해진 복음되신 예수그리스도를 기다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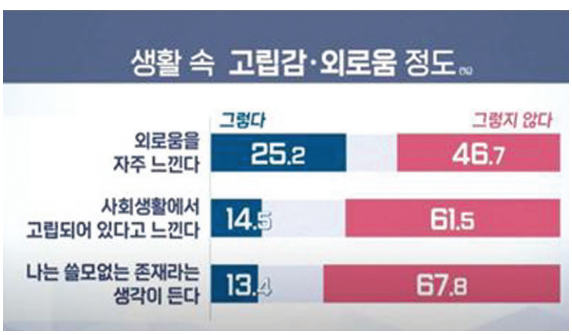
대림절을 맞이하여 '가난한 자'에게 전해진 아름다운 복된 소식이 교회와 가정과 일상에 전해지고 경험되기를 기대해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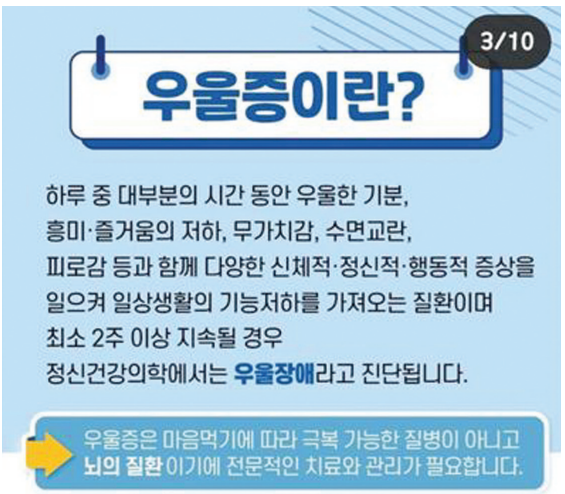
'우울증'의 이해와 교회의 돌봄

글 | 김규리 목사[1]

「한국교회 트렌드2025」에서는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 5명 중 1명 이상이 우울(23%)과 불안(22%)을 경험하고 있다고 보고합니다. 게다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자료를 보면 2022년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우울증 환자의 수는 100만 명을 넘었습니다. 이렇듯 우울증에 대해 교회에서도 이제는 전문적인 이해와 함께 영적 돌봄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기독청년 4명 중 1명이 "외롭다"(CBS 뉴스)



■ '우울감'과는 다른 '우울증'

슬픔(sorrow)은 어떤 대상을 상실하면서 느끼는 일정한 기간의 슬픈 상태입니다. 하지만 객관적 상황과는 상관없이, 슬픈 일이 없는 데도 슬픔을 느낀다면 이것은 우울(depression)입니다. 근심스럽거나 활기가 없는 가벼운 슬픔이 지속되는 것을 우리는 우울 혹은 우울감이라고 표현합니다. 이런 우울감이 점점 깊어지면서 심각한 우울 상태나 심한 자살 사고 등의 증상이 2주 이상 지속되면 우울증이라고 말합니다. 일반인이 우울(감)과 우울증을 구분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우울증은 정신과 의사 선생님이 여러 가지 진단기준을 고려하여 정신질환으로 판단하는 우울장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 우울증이라는 단어를 함부로 사용하는 것을 주의해야 합니다.

■ 꾸준히 치료하면 치료확률이 높아지는 우울증

우울증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우울증은 자살 시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울증 환자가 자살로 인해 사망할 확률은 15%이지만 자살 시도는 66%로 보고됩니다. 자살은 우울이 심한 시기에는 무기력감으로 잘 일어나지 않지만 회복기에 힘이 생기면서 자살 사고와 시도가 많아질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가족과 주변에서는 회복기에 있는 우울증 환자에게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둘째, 치료받지 않고 방치하면 약 6개월에서 2년 정도 지속이 됩니다. 우울증은 정신

장애로 진단되는 질병입니다. 가벼운 우울감도 오랫동안 방치하면 우울증으로 발전할 수 있으며 만성이 되면 우울한 성격이 되어버리기도 합니다. 만성이 되지 않도록 빠른 치료가 필요합니다. 셋째, 재발이 잘 됩니다. 처음에 우울증 치료를 잘 받아도 6개월 이내에 약 50%가 재발합니다. 하지만 꾸준히 치료하고 포기하지 않으면 치료확률이 굉장히 높은 병입니다.

■ 우울증을 위한 교회의 돌봄



김규리 목사, 기독인 우울증 강연

교회에서 필요한 돌봄은 첫 번째로 우울감을 숨겨서 만성이 되거나 자살로 이어지지 않도록 정확한 정보 제공으로서의 교육적 돌봄이 우선됩니다. 우울감은 누구나 겪을 수 있는 흔한 증상이지만 대수롭지 않게 넘길 때 일상이 무너지는 우울장애(우울증)까지 발전할 수 있습니다. 심각한 우울증은 반드시 전문 의사의 진단을 통한 항우울제 처방과 상담을 통한 심리치료가 필요합니다. 약은 우울한 기분을 억제할 수 있지만 우울한 기분 자체를 치료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약을 먹으면서 심리치료를 병행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또한 신앙인의 우울증은 신체적인 고통과 함께 교회 안에서 영적으로 부정적인 평가를 받는 이중 고통을 느낄 수 있음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공동체적 돌봄입니다. 우울감을 겪는 상당수는 어려서부터 거절, 고립, 학대, 폭력, 외상 등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수용, 이해, 지지, 공감, 격려받는 공동체의 경험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돌봄자의 자세입니다. 우울한 성도가 포기하지 않고 스스로 자신을 사랑할 수 있도록 옆에서 도우며, 부정적인 생각을 긍정적으로 전환하도록 오랫동안 함께 버티어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궁극적인 치유는 하나님과 만남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2024년 7월부터 정부에서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울과 불안 등으로 인해 전문 심리상담이 필요한 국민에게 상담 8회기를 무료~70%까지 지원합니다. 주민센터나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니 영은교회 성도님들도 전문 심리상담이 필요하시면 국가 지원의 도움을 받길 바랍니다. 병원이나 상담 전문가의 도움과 함께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 교회 공동체의 돌봄입니다. 열왕기상 19장을 보면, 바알 선지자와의 싸움 후 이세벨의 공격에 신체적, 영적으로 지쳐 도망가 깊은 굴속에 숨어버린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는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칠 천명의 동역자가 있음을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함께 모인 공동체의 돌봄은 소중합니다. 우리 주변에서 우울증을 겪고 있는 성도님들을 향하여 관심과 돌봄을 실천하는 영은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동행

1) 영은교회 협동목사, 연세드림 상담코칭연구소 대표, 명지대학교 상담복지학 객원교수, 장로회신학대학교 목회상담학 객원교수.

웹진동행 : 11월 핫 클릭

2025년도 1여전도회 임원단 선출

글 | **강경옥** 권사 (1여전)



2025년도 1여전도회 임원단과 회장 강경옥 권사(좌로 3번째)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매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마25:21)

예수그리스도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나온 1여전도회 임원들과 회원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지난 10월 20일 주일 3부 예배 후에 1층 예배실에서 월례회 및 총회가 있었습니다. 총회에서 2025년도에 일할 새 일꾼들이 선출되었습니다.

1여전도회는 여전도회의 가장 맏언니들로 65명 이상의 회원들이 연합하여 선교에 동참하고 있으며, 단톡방에서도 끈끈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 위로하고 중보하고, 월례회도 매월 30여 명 이상이 참석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은혜를 받으며 살아갑니다. 1여전도회는 1955년-1959년 사이에 출생한 영은교회 여성 성도들로 구성된 모임입니다.

2025년에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주신 사명을 기쁨으로 충성되이 잘 감당하여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1여전도회 임원들과 회원들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성도님께서 기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참

■ 2025년 임원단

회　장 : 강경옥 권사
부회장 : 박현숙 권사
총　무 : 이미혜 권사
서　기 : 김혜선 집사
부서기 : 오영림 협동권사
회　계 : 이옥금 권사
부회계 : 김원정 집사

웹진동행 : 11월 포커스 1



갈렙남성합창단 제2회 연주회
“주의 사랑 안에서”

글 | **김우철** 장로 (테너)



지난 11월 10일 주일 오후 예배 시 갈렙남성합창단의 제2회 정기연주회가 “주의 사랑 안에서”란 주제로 열려,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돌리며 성도들과 많은 은혜를 나누었다.

이날 연주회는 1, 2부로 나누어 진행됐다. 지휘는 오성환 집사가, 반주는 김수영 선생이 맡아 주었다. 1부에서는 〈하늘의 아버지〉, 〈오 예수〉, 〈험한 십자가 능력 있네〉 등 3곡이 연주됐다. 2부에서는 〈더욱 사랑〉, 〈주는 나의 목자〉, 〈주의 사랑 안에서〉 등이 연주됐으며, 소년부 중창단이 특별출연해 세대를 아우르는 따뜻한 무대가 꾸며졌다.

갈렙남성합창단은 2018년 5월에 창단하여 2019년 창단 연주회 후, 코로나로 인하여 5년 만에 제2회 정기연주회를 하게 되었다. 교회 안에 60세 이상의 남성들이 월 2회(1 · 4주) 모여 연습하고 있다. 지휘 오성환 집사(호산나찬양대 지휘자)와 반주 김수영 선생(시온찬양대 반주자)의 지도로 단장 이정규 은퇴장로와 40명의 단원이 모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하며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믿음을 지키고 있다.

이정규 단장은 “갈렙남성합창단을 통해 단원들이 사회와 교회에서 은퇴하고 생활의 긴장감과 활력이 떨어질 때 찬양으로 새 힘을 얻고 함께 모여 사귐으로 천국 가는 날까지 남은 인생을 아름답게 가꾸려 한다”는 인사말을 남겼다.

6여전도회, 2025년 새임원단 선출

글 | **양슬기** 집사(2024년 6여전 회장)



좌로, 김경미 총무(2025), 정정란 회계(2025), 이지영 부회장(2024), 김세연 부회장(2024), 양슬기 회장(2024), 신예나 회장(2025)

6여전도회 2025년 임원단

1. 회장 신예나
2. 부회장 김세연
3. 총무 김경미
4. 서기 최민지
5. 회계 정정란

6여전도회는 여성성도 중 1980년생부터 1984년생으로 이루어진 선교회입니다. 교육, 선교 그리고 혁신하는 신앙생활에 목표를 두고 2025년 새 임원들이 세워졌습니다(신예나 회장 외 4명).

자녀의 연령이 유치부부터 고등부까지 넓다 보니 모두 기독교적인 교육에 관심이 많습니다. 늘 깨어서 기도했던 한나처럼 자녀에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신앙의 롤모델이 되길 소망합니다.

내년 사업 계획으로는 자녀들의 기독교적 성교육과 찬양을 더 가까이 할 수 있도록 〈예람워십 찬양단〉을 섭외하여 교회에 초청해 보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제 자리에 고여 있는 물이 아니라, 흐르는 강처럼 생명수가 되어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헌신하는 6여전도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웹진동행 : 11월 포커스 3



예수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함께 서 있는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함께 서 있는 공동체"가 구현된 새본당

– 본당 리모델링을 마치고 –



본당 리모델링 컨셉: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함께 함께 서 있는 공동체"

11월 10일 주일, 본당 부분 리모델링을 마치고 첫 예배를 드렸다. 리모델링 공사는 7월 29일부터 11월 9일까지 3개월 동안 진행됐다. 공사 기간 중 6층 체육관과 1층 임시 예배실, 5층 권사실 그리고 7층 식당에서 분산해 예배드렸으며, 11월 10일 주일에는 새롭게 단장한 본당에서 온 성도가 함께 예배했다.

Concept

01_영은교회의 목회 비전은 "공동체 Spirit"을 지향합니다. 리모델링된 영은교회 본당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함께 모여 기도하고, 고민하고, 의논하는 믿음의 공동체를 닮는 공간으로 계획하였습니다.

02_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성도들이 바로 서 있는 공동체를 형상화하였으며, 강단 뒷벽(루버)과 5층 상단 파라펫의 색상을 통일하여 원형으로 모여 있는 듯한 느낌이 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강단 뒷편은 고운 사비석(화강석의 일종) 느낌의 박판타일을 계획하여 강단과 회중석을 구분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03_회중석의 벽체의 주조색은 밝은 트레버틴(석회암) 무늬 보드(스톤보드)로 디자인하여 전체적으로 예배당의 통일된 분위기와 신앙공동체의 환대가 느껴지도록 조성하였습니다.

04_5층 상부를 떠받치는 원형기둥의 마감을 제거하고 노출콘크리트 보수 마감으로 시공하여 얇아진 기둥을 통해 개방감을 부여하였습니다.

05_회중석 뒤편의 기둥들은 단조로움을 벗어나기 위해 노출콘크리트 보수 마감으로 하고 벽과 기둥 사이 간접조명을 넣어 벽체에서 떨어진 것처럼 계획하여 공간감이 느껴지도록 하였습니다.

06_5층 회중석 하부 천정의 높이를 높이고 간접조명을 설치하여 개방감을 위해 확보하였습니다.

07_자모실은 채광을 위한 중간 창문을 통해 유아실과 아동실이 구분되어 있으나, 시각적으로 한 공간이 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08_영은교회 본당은 예배에 집중할 수 있는 단순함 속에 신앙공동체로서의 의미를 떠올릴 수 있는 공간이 되고자 하였습니다.

2024년 임직식

지난 2024년 11월 24일 주일 3시 30분 오후 예배에는 2024년도 임직식이 있었다.

이날 임직 예배에서는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으로 영등포 노회장, 여의도 제일교회 박태준 목사님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셨다.

박목사님 께서는 말씀을 통해 3가지 비유를 하셨다.

① 등불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처녀 ② 달란트 비유

③ 양과 염소로 구분되는 사람들의 이야기

이 세가지의 비유를 통해 마지막 때에 심판 받는 사람과 구원 받는 사람들을 말씀하셨다.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는 기준이 선행이라 여기지만 그것이 아님을 말씀하시며 믿음은 마음속에 있음이 아니라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있음을 말씀하셨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삶속에서 예수님을 증명해야 한다는 말씀도 강조하셨다. 또 알곡과 가라지로 구별되는 우리의 마지막 때를 생각한다면 우리의 삶은 항상 주님을 닮아가야 함을 말씀하셨다.

목사님께서는,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은 무엇으로 증명 될 수 있는가를 생각 할 때 지극히 작은 자들에게 우리의 마음이 전해져야 함을 말씀하셨다. 지극히 작은 자는 말 그대로 루저, 실패한 사람,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일 것이다.

지극히 작은자! 우리는 그들을 결코 외면해서는 안된다.

여기 교회에 모여 함께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성도들 중 작은 자를 찾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들에게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님을 섬기듯 그들을 사랑하며 마음을 나누고 돌봐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영은교회에 그런 사랑이 가득한 천국을 이루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며 오늘 임직을 받은 모든 임직자들과 영은교회 성도들은 서로 격려하며 작은 자들에게 마음을 더욱 기울이는 이 시대에 꼭 필요한 교회가 되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셨다. 이어서 영등포노회 전 노회장이며 임마누엘 교회 이영석 목사님의 권면의 말씀이 있은 후 장로 안수를 받은 이도수 장로의 답사를 통하여 “부족한 사람을 자녀 삼아 주시고 주님의 일꾼으로 삼아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앞으로 주님 뜻에 따라 교회에 필요한 곳에 힘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다음은 이 날 임직받은 장로, 안수집사, 권사들의 명단이다.

〈정리 | 서선이 기자〉







장로 소개


이도수


김석진


공현진


김철수

안수집사 소개


정원준


이지윤


김창원


전용주


연상훈


최종성


김정희C


최정훈


최춘호


이성호B


서정범


박용철


박호균


유근만


정재면

권사 소개


강인애


김경원B


박상신


김연숙A


염용희


조지영A


진경애


주영희


김미향A


주영경


송주희


한기숙


강은주


김영순A


김연숙B


마명숙


권계정


허신영


노현숙


김정숙C

추수감사주일 교구별 찬송경연대회



11월 17일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여 오후예배 시간에 〈교구별찬송경연대회〉가 있었다. 1교구에서 6교구, 그리고 청년부까지 모두 7개 팀이 찬송경연대회에 참가하였다. 오카리나 연주팀과 아동부찬양대가 특별출연해 대회를 빛내 주었다.

사회자 윤성호 안수집사의 재치있는 진행으로 대회를 마치고, 교구 목사님들의 엄격한 심사 결과가 발표됐다. 영은 대상은 3교구가 거머쥐었다. 3교구는 〈추수감사찬양〉이란 찬양곡을 부르며, 전원일기를 컨셉으로 교구 소개 영상부터 찬양과 율동, 분장에 이르기까지 추수감사의 의미를 목가적으로 가장 멋지게 담아 표현했다. 믿음상(1등)은 새가족으로 구성된 6교구에게 돌아갔다. 6교구는 한복을 차려입고, 국악 반주와 함께 감사 찬양을 불러 관중들에게 힘찬 박수를 받았다. 소망상(2등)은 4교구, 사랑상(3등)은 2교구, 동행상(4등)은 1교구, 인기상(5등)은 5교구 그리고 특별상은 청년부가 받았다.

"매년 새로운 모습으로 발전하는 교구별 찬송경연대회를 진행하면서 짧은 준비 기간임에도 다양한 모습으로 준비하시는 분들의 열정과 창의성에 감명을 받게 됩니다. 특별히 올해는 전원일기 버전으로 준비한 교구 소개 영상은 압권이었고, 또한 가족사진 영상도 무척 좋았습니다. 작년에는 뮤지컬 스타일의 모습이 있었다면, 올해는 판소리 스타일의 경연도 보게 되어 즐거웠습니다. 또한, 교회 전체 행사에 열정과 멋짐을 담당해주는 청년부, 그리고 영원한 귀요미들인 아동부찬양대, 멋진 선율의 오카리나, 모두 다 연합하여서 하나님께 감사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사회자 윤성호 안수집사의 소감이다.

〈글 | 김명희 기자〉

LOVE IS POWER (사랑이 힘이다)
– 제5회 소리콘서트 –

지난 11월 9일(토),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청년부가 주최하고 영은문화아카데미 산하 〈팀.소리〉가 주관한 제5회 소리콘서트가 3층 비전홀에서 있었다.



피날레로 "여기에 모인 우리"를 찬양하고 있는 소리콘서트의 전 출연진

김민식 목사님의 기도로 시작된 소리콘서트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요 13:34)란 말씀을 중심으로 '사랑'을 주제로 진행됐다. 이날 소리콘서트는 김나연 청년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메인 아티스트 3팀과 특별출연 2팀이 정성스레 준비한 무대로 풍성했다.

첫 번째 메인 아티스트는 청년부 밴드 Note: Band로 가요와 CCM을 포함해 총 3곡을 선보였다. 두 번째 메인 아티스트는 성지혜 청년으로, 작은 뮤지컬 공연을 선사했다. 특별히 김혜지 청년이 뮤지컬 스타일의 무대를 구성했다. 초등부 신루아 어린이가 어린 지혜 역으로, 김혜지 청년이 젊은 엄마 역으로 열연해 춤, 연기, 노래가 완벽한 고품격의 뮤지컬을 보여주었다. 세 번째 메인 아티스트는 더블베이스(콘트라 베이스)를 전공한 장경수 청년으로, 교회에서 보기 힘든 수준 높은 클래식 연주를 선보였다. 장경수 지휘자가 피아노 연주와 전체 편곡을 맡아 진행했다. 김한욱 청년은 독일어로 베토벤의 "그대를 사랑해"(Ich liebe dich)를 불러주었다. 마지막으로 모든 출연자가 나와 "여기에 모인 우리"를 한목소리로 찬양하였다.

소리콘서트를 위해 싱어송라이터 고효경과 기타리스트 장대승으로 구성된 고효경 밴드의 찬조 공연, 아동부 연합찬양대의 축하 공연이 더해져 많은 이들에게 즐거움과 감동을 선사했다.

글 : 장예은(연출)

빛나는 성과의 주역이 된 영은 로이 수영팀
– 고양 전국 마스터즈 수영대회 출전 –

글 | **윤흥식** 안수집사



고양전국마스터즈 수영대회에 출전한 영은 로이 수영팀 : 금 1개, 은 2개, 동 1개

지난 11월 9일(토) 고양전국마스터즈 수영대회가 고양체육관 수영장에서 개최되었다. 고양전국마스터즈 수영대회는 11월 9일~10일, 이틀 동안 학생부 350명과 일반부 350명, 총 700여 명이 참가하는 큰 규모의 수영대회다.

영은토요학교 〈영은 로이 수영팀〉이 발족된 이래 첫 번째로 출전한 대회가 고양전국마스터즈 수영대회다. 처음으로 출전한 전국대회에 학생부 총 11명이 참가해 빛나는 성과를 올렸다. 개인전 및 단체전 25경기에 출전하여 금 1개, 은 2개, 동 1개를 수상하였다.

영은토요학교 〈영은 로이 수영팀〉은 지난 9월 22일에 발족되어 첫 모임을 가졌다. 한 달에 2회 강서구와 고양시 소재 3개 수영장 레인을 대관하여 수영연습을 하고 있다. 초등학교 2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 11명의 학생과 2명의 교사(감독: 윤흥식, 코치: 심은영)가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10월에는 〈영은 로이 수영팀〉이 각종 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대한수영연맹에 클럽 등록을 신청하여 연맹으로부터 승인받아 정식 클럽으로 등록되었다.

수영팀이 운영되면서 교회에 새롭게 등록한 가정도 있으며, 교회학교에 다시 출석하게 된 친구도 생겼다. 앞으로 〈영은 로이 수영팀〉은 교회 가까운 지역(영등포구, 양천구, 강서구)에서 진행하는 각종 수영대회에 참가하여 수영으로 교회의 문턱을 낮추고, 지역에서 전도자의 역할을 하려고 한다.

① 서혜진(중3) : 배영 100m 은메달, 평영 100m 은메달

② 서아영(중1) : 평영 100m 금메달, 개인혼영 200m 동메달

③ 참가자(11명) : 서혜진(중등), 서아영(중등), 서유정(초4), 이서현(초4), 나하라(초3), 김민서(초3), 이아현(초2), 나승리(초6), 김태연(초5), 유지훈(초4), 장시우(초3)

신앙의 유산 : 홍창식 은퇴장로

평생 '찬양자'로 살아온 홍창식 은퇴장로



홍창식 은퇴장로

우리 교회는 평생 찬양을 사랑하며 '찬양자'로 살아온 분이 있다. 홍창식 은퇴장로다. 올해 80살이 된 홍 장로님은 50년 넘게 찬양으로 헌신했다. 특히 안수집사가 되면서 시작한 수요예배 찬양 인도는 장로가 되기 전까지 무려 8년간 맡아서 수행했다. 주님에 대한 사랑을 찬양의 열정으로 불살랐던 장로님이다.

■ 나중된 자가 먼저 된 신앙열정꾼

장로님이 예수를 믿기 시작한 것은 고등학교 1학년 때다. 집안 식구 중 누구도 예수를 믿지 않았다. 원효로에서 살다가 양남동에 터 잡은 부모님을 따라 홍 장로님도 어린시절을 양남동에서 보냈다. 교회와는 무관하게 살던 홍 장로님 가족이 예수를 믿게 된 것은 부친이 돌아가시면서다. 양남로터리 파출소 뒤 편에 자리한 성은교회는 홍 장로님의 부친상 장례식을 정성껏 치러주었다. 장례식을 계기로 어머니와 식구가 교회에 다니게 되었다. 그때 큰 형님은 영서교회로 갔고, 어머니와 홍 장로님은 성은교회에 등록했다. 2년 남짓 지났을까? 성은교회에서 성도 간의 갈등으로 담임목사가 교회를 나가는 불미스러운 일이 생겼다. 그때 홍 장로님은 어머니와 함께 영은교회에 등록하게 되었다. 장로님이 고등학교 3학년 때였다.

"나중 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리라"(마20:16)는 말씀처럼, 늦게 신앙생활을 시작한 홍 장로님의 신앙에 대한 열정은 뜨거웠다. 2년 남짓 다니던 성은교회에서 세례를 받고, 고등부 회장까지 역임하게 되었다. 1962년 1월 1일, 새해 첫 주일에 영은교회에 어머니와 함께 등록한 홍 장로님은 성은교회에서 쌓았던 신앙의 열정을 영은교회에서도 아낌없이 불태웠다. 교회학교 교사와 찬양대에 지원했다. 초등부 교사를 하며 반 아이들과 당중초등학교 운동장에 가서 공차는 게 재밌었다. 당시 찬양대 지휘는 故 김창경 장로가, 반주는 故 송리복 장로가 맡았다. 이때 시작한 찬양 봉사는 50여 년 동안 장로님의 '영광의 사역'이 되었다.

■ 총각 1호 집사



반남순 권사와 홍창식 장로

홍창식 장로님은 영은교회에서도 신앙생활을 적극적으로 열심히 했다. 장로님이 영은교회에 왔을 때의 일이다. 그때는 제1대 박조준 담임목사님을 중심으로 빨간 벽돌로 교회를 짓고 있었다. 온 성도가 성전의 벽돌을 나르며 공사에 참여했다. 고등학교를 갓 졸업한 장로님도 벽돌을 날랐다. 그리고 새벽마다 열심히 기도했다. 이 모습을 지켜본 故 김명구 권사는 "벽돌 교회를 지을 때 기도하면, 어떤 까까머리 총각

이 기도를 얼마나 오래 하는지 내가 따라가지 못했다"라며 두고두고 말하곤 했다.

장로님은 세상 친구는 없었다. 교회가 유일한 친구였다. 영등포지역에 있는 영은교회와 당일교회, 영등포교회 등 주변 교회들과 체육대회를 할 때면 홍 장로님과 그의 친구들이 영은교회 대표 배구선수로 활약해 좋은 성적을 거둘 때가 많았다. 교회 생활이 재미있었다. 장로님은 박조준 목사님이 영락교회로 가기 전 군에 입대해서, 정인영 목사님이 제2대 담임목사로 부임하던 해(1967년)에 제대했다. 제대 후에는 더 열심히 교육부서와 찬양대에서 봉사했다. 장로님은 1975년 우리 교회 역사상 제1호 총각집사로 임명을 받았고, 그해 2월 26일 영은교회 본당에서 제3대 장일균 담임목사님의 주례로 반남순 권사와 결혼식을 올리면서 겹경사로 축복의 해가 되었다.

■ 8년 동안 수요예배 찬양사역

아내 반남순 권사는 결혼하기 전에는 무신론자였다. 반 권사님이 교회에 나오게 된 것은, 홍 장로님을 만나면서다. 권사님은 결혼식과 함께 영은교회에 등록교인이 되었다. 반 권사님도 장로님만큼이나 신앙의 열정이 뜨거웠다. 초신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등록일로부터 철저하게 '주일성수'를 지켰다. 출산 때 외에는 주일 예배를 빠지지 않았다. 반 권사님의 친정은 불교 집안이라서 주일에 결혼식이나 중요행사가 종종 있었다. 그러나 권사님에게는 주일성수가 집안의 결혼식이나 그 어떤 행사보다 더 중요했다. 권사님은 철야기도와 새벽기도에 최선을 다했고, 매주 월요일마다 기도원에 다니며 신앙훈련을 받았다. 제4대 이용남 담임목사님 때 〈40일 특별새벽기도회〉가 있었는데, 권사님은 장로님과 하루도 빠지지 않고 기도회에 참석했다. 홍 장로님은 신정네거리 집에서부터 츄리닝을 입고 뛰어서 새벽기도를 다녔다. 이용남 목사님이 훗날 장석교회에 가서도 '신정네거리에서 뛰어서 새벽기도회를 다녔던 홍 장로님'을 잊지 못할 정도였다.

홍 장로님은 1990년 4월 22일, 교회창립 30주년 기념주일에 집사 안수를 받았다. 이때부터 수요예배 준비찬양을 인도했다. 찬양인도는 1998년 4월 9일 장로장립식을 하면서 그만두었다. 8년 동안 찬양사역을 하면서 에피소드도 많았다. 당시 장로님은 용달사업을 하고 있었다. 강남에서 일을 마치고 오는데 도로가 막혀 차를 운전할 수 없었다. 장로님은 화물차를 잠실역에 세워두고 지하철을 타고 교회에 와서 수요예배 찬양을 인도했다. 반 권사님은 항상 집에서 양복을 가지고 와서 대기하고 있다가 일터에서 곧바로 교회에 온 장로님에게 옷을 건넸다. 음악에 문외한이었던 장로님이 찬양인도자가 될 수 있었던 데에는 교회가 있었다. 장로님은 교회에서 음악을 처음으로 배웠고, 주님이 주신 하늘의 목소리로 평생 찬양하며 성도들과 은혜를 나눴다.

장로님은 1998년 겨울 용달차에 짐을 싣다가 다쳐 수술과 치료를 받았지만, 현재 후유증으로 걷기가 힘들다. 교회가 삶의 전부였던 장로님은 주일성수를 못하고 있다. 그럼에도 집에서 만난 장로님은 '찬양자'의 빛나는 얼굴 그대로였다. 〈인터뷰 글 | 김명희 기자〉



장로장립식(1998.4.19.): 홍창식 장로(앞줄, 우)

보라, 새것이 되었……, 나?

글 | **이숙경** 기자

연말연시, 새 달력과 스케줄러를 준비할 무렵이 되면 떠오르는 성경 구절이 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고후 5:17)' 물론 시간을 날짜와 년도로 구분하는 것은 사람이 멋대로 재단한 것이고, 시간은 연속성이라 올해와 내년이 특별히 다르지 않다. 그러나 올해가 아무리 흑역사에 푹 담갔다가 뺀 것처럼 엉망진창이었어도, 숫자 하나 바뀌어서 내년이 되면 그 모든 것들이 마술처럼 뽀로롱 없던 것이 되고, 연필 자국 하나 안 남은 새 공책 첫 페이지를 펼치는 기분이 된다.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이 얼마나 자기합리화하기 좋은 구절이란 말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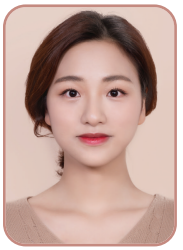
그러나 삶이란 연필로 한자한자 꾹꾹 눌러쓴 노트를 깨끗이 지워 다시 첫 페이지를 펼친 것과 같다. 청산하지 못한 과거는 반드시 자국이 남는다. 오래된 기억은 화이트로 지워 보이지 않게 된다 해도, 그 더께를 밀면 반드시 흔적이 남아 있기 마련이다. '나'는 어제도 오늘도, 올해도 내년에도 여전히 '나'이고, 연속된 시간의 한복판에 서 있을뿐이다.

위의 성경 구절의 앞부분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이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후의 삶은 분명 새로워야 하고, 바뀐 삶이 되어야 한다. 새해가 되면 온갖 건설적인 계획을 세우고 다짐을 하듯,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 새로운 삶에는 각오와 결심이 필요하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지난 역사와 과오를 '모르는 척' 해도 된다는 자기합리화의 주문은 아니다. 아니, 오히려 그 반대다. 그리스도를 알기 이전의 우리는 죄에 무감하고 과오에 무심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된다.

'새것'이 된다는 것은 그런 것이다. 그동안 모르는 척해왔던 노트의 연필자국을 제대로 바라보고 바로잡는 것. 잘못 쓴 연필자국을 이번에도 똑같이 따라 덧쓰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글자로 올바른 문장을 다시 적는 것.

나는 때때로 내가 기독교인이라는 것이 버겁다. 하나님을 믿으면 내 인생이 술술 풀리고 만사형통이 되리라는 기대는 착각이다.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었고, 베드로 역시 가혹한 형벌로 죽었으며, 바울은 선교 활동 내내 수도 없이 감옥에 갇히고 핍박받았다. 손양원 목사님이 어떻게 순교했는지 생각해보라. 가만히 찾아보면 도통 평화롭고 안온한 삶을 살았던 그리스도인이 없다. 사실 '새것이 되었도다'라는 구절은 – 나 역시도 해마다 꽤나 산뜻한 기분으로 이 구절을 떠올리고는 하긴 하지만 – 그리 가볍고 상쾌한 구절만은 아니다. 곱씹으면 곱씹을수록 이토록 무겁고 묵직한 구절이 또 없다.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과 이후가 분명 달라야 하는 존재들이다. 2025년을 목전에 두고, 2024년 동안 삶에 남긴 궤적을 돌아본다. 나는 하나님 자녀에 걸맞은 새 사람이었나. 진정 새것이 되었나. 새해에는 더 많은 회개와 더 큰 각오를 다져본다.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내 삶이 그리스도를 알기 전보다 더 빡빡하고 손해를 보고 어려워질 수 있다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영은, 녹색 제10계명 : 녹색 식단을 실천한다!

글 | **장예은** (팀.초록 팀장)

하나님이 직접 창조하신 이 모든 세계를 돌보고 지키는 것은 청지기 된 그리스도인들의 거룩한 책무다. 올 한해 10회에 걸쳐 〈영은 녹색 십계명〉을 소개하며, 한 명의 영은 성도라도 녹색 신앙을 갖게 되기를 바라고 또 바랐다. 하지만 때로는 너무 처참한 현실을 적나라하게 전해서 괜히 우울감을 안겨주었을까 걱정이 되기도 했다. 마지막 회인 〈영은, 녹색 제10계명 : 녹색 식단을 실천한다!〉에서는 탄소배출을 최소화하고 환경을 지키는 녹색 식생활에 관해 소개한다.



녹색 식단 실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생명 밥상 빈 그릇 운동"이다. 이는 생명을 더욱 풍성히 살리고, 식사를 남기지 않는 식습관 운동이다. 불교의 식사는 그 종교의 가치를 잘 드러내면서 생명을 풍성하게 하는 식단으로 현대인들에게 다시 각광을 받고 있다. 주어진 음식을 감사히 여기고 한 톨도 남기지 않는 습관 역시 그러하다. 불교도가 아닌 많은 이들이 앞다투어 스님에게 가서 불교식 녹색식단을 직접 배우기도 한다.

기독교의 식사는 어떠한가? 기독교인이 삶에서 살아내는 가치들을 잘 느낄 수 있는가? 중세 수도원의 수도사들은 직접 땀 흘려 농작물을 재배했고, 소중하게 수확하여 조리하고, 100번씩 씹으면서 채소의 질감과 향을 음미했다.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는 하루에 세 끼씩, 일주일이면 21번의 밥상을 만난다. 그중 단 한 번이라도 완전한 채식을 실천한다면 과정에서부터 탄소를 줄일 수 있다. 단순히 붉은 고기(소고기, 돼지고기 등)를 피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는, 채소의 맛을 온전히 누리는 채식을 추천한다. 최소한으로 손질하여 뿌리부터 껍질까지 온전히 요리하고, 식탁에 올랐다 남겨서 버리는 '밥상 부산물'을 줄여보는 것이다. 교회에서 실천하기란 참 힘든데, 녹색 주일 한 번만이라도 녹색 식단을 도전해보면 어떨까? 버섯, 당근, 양파같이 흔한 채소들도 생김과 맛을 음미하며 식사한 뒤 한 톨도 남기지 않는 것이다. 남기지 않으려면 먹을 만큼 조리하고 덜어 먹는 것도 중요하다.

필자는 항간에 채식에 대해 비아냥거리는 말이 떠도는 것도 알고 있다. 혹여나 영은의 성도들도 '에이, 나 하나 채식한다고 세상이 달라지겠어?' 라며 채식에 반감이 생기거나, 삼겹살이나 치킨을 먹은 자신의 모습에 죄책감만 부추기지는 않았는지 되짚어 본다. 우리에게는 서로가 서로에게 희망이다. 오늘 하루 일회용품을 줄이고 내일은 못 했더라도, 같은 팀 집사님은 지키고 나는 못 지켰다 하더라도 교회는 존재 자체로 세상의 희망이다.

장로, 안수집사, 권사 임직예식



▶ 교회를 섬기는 분들

원 로 목 사 허남기
담 임 목 사 이승구
부 목 사 최광주 이준희 이에리야 박대원 정성훈
한진구 신요한 김민식 이찬양
교 육 목 사 전수현
전 도 사 장미애
교육전도사 나진희 박선민 김영락 김찬영 김회창
황예찬 손예지
파송선교사 구용회 백현이
협 동 목 사 소병찬 김규리

▶ 영은교회 찾아오시는 길



▶ 영은교회 예배시간

구 분	시 간	장 소
주일예배	1부 오전 7:30	본 당
	2부 오전 9:00	
	3부 오전 11:00	
	4부 오후 1:30	
오후예배	오후 3:30	본 당
수요예배	오후 7:30	본 당
새벽기도회	매일 오전 5:30	본 당
금요심야기도회	금요일 오후 8:30	본 당
영아부	주일 오전 11:00	1층 영아부실
유아부	주일 오전 11:00	비전센터 2층
유치부	주일 오전 11:00	비전센터 2층
유년부	주일 오전 11:00	비전센터 5층
초등부	주일 오전 11:00	비전센터 5층
소년부	주일 오전 11:00	비전센터 5층
꿈자람부	주일 오후 1:30	비전센터 2층
중등부	주일 오전 11:00	비전센터 비전홀 3층
고등부	주일 오전 9:00	비전센터 비전홀 3층
제자학교	주일 오전 10:00	비전센터 비전홀 3층
청년부	주일 오후 1:30	비전센터 비전홀 3층

대한예수교장로회 영은교회
www.youngeun.or.kr
월간동행 e-mail : yemagazine@naver.com